



주간통일정세 2008-19(2008.05.06~05.12)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19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청진 염소목장·합성수지관공장 현지지도(5/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청진시에 위치한 청진염소목장과 청진수지관(합성수지관)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목장의 각종 시설을 둘러보고 “종자문제와 먹이문제를 해결하며 축산에서 수의방역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가공시설들을 더욱 대형화, 현대화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으나 과업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음.
 - 김 국방위원장은 이어 청진수지관공장을 방문, 시설들을 둘러봄. 청진수지관공장은 건설장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고압관, 저압관, 연결부속관 등 다양한 규격과 용도를 가진 수지관을 생산해 공급
 -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책임비서와 김기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등이 동행

- **김정일, 전투력 강화 강조(5/5, 5/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1105군부대를 시찰, 전투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지휘참모훈련과 화력시범훈련을 참관한 후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을 제시했으며 “부대 지휘성원들은 언제나 훈련을 중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 진행하며, 부대 안의 군사정치사업이 다 훈련을 잘하는 데로 지향되고 복종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보도
 - 김정일 위원장은 또 ‘김일성청년영예상’ 수상자인 김명철을 만나 담화했으며 군부대 산하 중대군인들의 예술 소품공연을 관람하고 군인, 가족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함.
 - 이날 시찰에는 현철해, 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김정일 위원장이 강원도 고산군에 위치한 고산과수농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4일 보도

나. 정치 관련

- **北, 남북관계 현상유지 바라지 않아(5/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북한 대남 관계자들의 언급을 인용해 “대결전을 이겨낸 조선은 현상유지를 바라지 않는다”고 주장



- 신문은 ‘<공화국창건 60돌 대결속에서 지킨 나라> 현장체험자의 증언(하)’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남관계자의 언급(최성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참사)이라면서 “분단의 비정상을 언제까지 내버려두겠는가. 6·15구현의 담보는 있다. 장군님(김정일)의 대에 기어이 통일을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것이 우리의 철석같은 의지다”라고 전언
 - 그는 “통일을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최고영도자의 의지가 6·15선언의 기본정신인 ‘우리 민족끼리’에 집약되었다”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남북관계에 대해 “6·15실전은 통일을 반대하는 외국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하고 외세와의 대결은 그 본질이 우리 민족 대 미국의 대결이고 사실상 그것은 힘의 대결”이라고 주장하고 “조미대결이 격화되고 긴장이 조성될 때면 민족대화도 예외없이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
- 北, 南정부 대북·대외정책 비난 지속(5/11,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5/10,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11일 ‘시대와 민심의 지향을 거역하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는 기사에서 남한 정부가 “친미사대, 외세의존 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으며...‘실용주의’와 ‘비핵·개방·3000’ 따위로 6·15통일시대의 전진에 제동을 걸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
 - 조선중앙방송도 11일 ‘제 코부터 씻으라’는 제목의 단평에서 “이명박이 미국의 식민지 연속경제나 가지고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우리에게 선심이나 쓰는듯이 가소롭게 놀아대는 꼴이야 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웃다 꾸레미가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고 비아냥
 - 통일신보는 10일, 이명박 정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개방 조치는 “친미 굴종의 산물”이고 “매국 배족적인 행위”라며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과 그에 아부하는 친미보수집권세력의 외세 굴종행위를 단호히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선동
 - 北, 5·10총선거 논평서 南정부 맹비난(5/10, 평양방송; 우리민족끼리웹사이트)
 - 북한 매체들이 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 남한에서 단독으로 실시된 5·10 총선거 60돌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보도
 - 북한의 대남방송인 평양방송은 이날 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역도” 등의 극언을 사용하면서 “비핵·개방·3000이라는 엉터리없는 궤변을 대북정책으로 들고 나오면서 미국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추종해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평화변영을 위한 북남 협력 사업에도 빗장을 지르고 있다”고 주장
 -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대중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다시 한번 지퍼올리자’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친미 보수세력들이 활개치는 조건에서는 지난 세기의 6·25전쟁과 같은 참화와 낡은 시대의 대결만 되풀이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역시 “5·10단선을 반대하여 총



필기했던 그때의 정신과 투지로” 반미, 반보수 투쟁을 할 것을 촉구

● **식량 자체 해결이 사회주의 고수에 긴급(5/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자’라는 긴 제목에 본문도 장문인 사설을 통해 “현 시기 농업전선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이며, 인민생활을 높이는 데서 알곡생산을 늘이는 것보다 더 절실하고 중대한 과업은 없다”며 “농사는 강성대국 건설의 천하지대본”이라고 강조
- 신문은 특히 “오늘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경제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서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 북한 군도 농사에 동원되고 있음을 시사
- 신문은 특히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은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로 보나,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과 현실적 조건으로 보나, 또 세계적 추세로 보나 우리는 농업전선에서 담보할 수 없으며, 결정적으로 농업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

● **남북관계를 빈 돈주머니로 흥정하려 해(5/9, 민주조선; 평양방송)**

- 민주조선은 9일 핵포기와 개방시 10년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관련, “우리 공화국(북)에는 우리 인민이 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놓은 자립경제가 있다”고 주장, 신문은 ‘비핵·개방·3000’ 구상을 “서푼짜리 사탕발림수”, “북남 협력사업에 빚장을 질러 미국의 반공화국 책동에 적극 가담하기 위한 대결선언” 등으로 비난
- 평양방송도 9일, 대담 코너에서 ‘국민소득 3천달러’ 구상에 대해 “북남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평화변영을 위한 북남 협력사업에 빚장을 지르자는 것”이라며 “북남관계 문제를 빈 돈주머니를 가지고 흥정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제11차 춘계국제상품전람회 개막(5/12, 조선중앙통신, 5/9, 조선신보)**

- 북한 평양의 3대혁명전시관에서 12~15일 열리는 제11차 봄철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180여개 외국기업이 참가, 전람회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9일 보도
- 제11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2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개막식에는 북측에서 로두철 내각 부총리, 리용남 무역상, 김정식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평양 주재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
- 이번 전람회에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시리



아,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베트남, 태국, 프랑스, 핀란드 등 18개국의 기업들이 참가하며 공작기계, 전기 및 전자설비, 운전기재(운송장비),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 이들 외국기업은 중국(120여개)과 대만(30여개) 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북한이 최대 규모라고 했던 지난해 전람회(130여개)에 비해 50개나 증가한 수준

- 특히 그동안 중국 대기업들이 참가할 경우 ‘대리점’ 간판을 걸고 참가했으나, 이번엔 ‘하이얼집단전기산업유한공사’, ‘청도하이얼특수극동기유한공사’, ‘중국홍콩공기유한공사’, ‘TCL해외전자유한공사’ 등 본사가 직접 나서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북한 최대의 상품전인 평양국제상품전람회의 봄철 전람회는 1998년 시작됐으며 2005년부터는 가을철 전람회도 개최되고 있음.

● 올해 모내기 시작(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농촌에서 올해 모내기 작업이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는 5월 10일 중앙과 도·시·군에서 내려간 지원인원과 함께 모내기를 했고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은 12일 첫 모를 낔.

라. 군사 관련

● 민족자주 담보는 군사력(5/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우리에게 필승불패의 혁명무력과 자립적 국방공업이 없었더라면 이미 전에 조선반도에서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고 우리의 사회주의는 수호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평화는 구걸과 타협의 방법으로는 절대 보장할 수 없”고 “오직 막강한 군사력으로써만 쟁취하고 수호할 수 있다”며 “발전도상 나라들, 작은 나라들일수록 군사력 강화에 더욱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

● 긴장 격화, 제2의 6·25전쟁 가능성 고조(5/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이명박 역도의 군사적 대결소동 진상을 폭로’라는 제목의 군사논평원 글에서 남측의 이명박 정부와 군부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면 충돌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제3의 서해교전, 제2의 6·25전쟁을 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 남측 군부를 거론하면서 “군사적 대결소동은 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것으로 인해 더욱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남북간 합의를 ‘퍼주기’로 몰아가고 10·4선언을 ‘할 것’, ‘나중에 할 것’, ‘하지 못할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비난



에서 기아사태가 빚어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

● ‘세계 적십자의 날’ 대대적 기념(5/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제61회 ‘세계 적십자의 날’인 8일 평양과 각 지방에서 다양한 행사 개최
- 노동신문은 “자연재해의 후과(피해)를 가시고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 위한 적십자 및 적반월회국제연맹의 활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평양에 강냉이국수 붐(5/8, 조선신보)

- 시원한 오이냉국에 옥수수로 뽑은 사리가 담긴 강냉이국수가 평양시민들의 애호를 받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거듭 강냉이국수의 보급 상황을 보도

● 백두산 천지 새 온천 발견(5/8,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가 최근 새 온천을 발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통신에 따르면 ‘락원온천’으로 불리는 이 온천은 락원봉 기슭에 있으며, 길이 20m, 너비 5m 크기에 최고 수온 47.5도, 평균 수온 45도에 탄산수소나트륨 성분이 많은 pH 6.8의 중성천임.
- 백두산 천지 부근에는 락원온천 외에도 백암온천과 백두온천이 있음.

● 식량난속 ‘爲民’정책 선전 강화(5/8,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4/26, 통일신보)

- 노동신문은 8일 논설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는 인민의 복리증진에 대한 혜택이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인민적 시책들이 널리 실시되고 있다”며 ‘무료 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도’, ‘어린이 보육교양제도’, ‘정휴양(근로자 휴양)제도’ 등을 중요한 “인민적 시책”들로 언급하고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민적 시책들은 강성대국 건설이 진척될수록 여러 분야에서 더욱 전면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임.
- 조선중앙방송도 8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조국 앞에 위훈 세운 영예군인(상이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혜택이 끊임없이 베풀어지고 있다”면서 “국가적 관심과 방조(지원)속에 동림, 달천영예군인 요양소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려졌으며 영예군인 공장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고 선전
- 노동성의 장애화 사회보험국장은 통일신보(4.26)를 통해 “국가의 인민적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기 위해 최근 노동성에서는 많은 정휴양소들을 새로 건설하는 것과 함께 전에 건설된 정휴양소들을 개건보수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 있다”고 언급



- **노력영웅 ‘정춘실’ 소재 영화제작(5/8, 조선신보)**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정춘실(67.여) 자강도 전천군 상업관리 소장의 삶을 소재로 한 기록영화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한 모습으로’를 제작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자랑거리 대동강맥주 “맛 더 좋게”(5/8, 노동신문)**
 - 최근 로이터통신이 ‘최고품질의 맥주중 하나’라고 평가한 북한의 대동강맥주의 품질 향상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
 - 노동신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에도 대동강맥주의 질을 높일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공장에선 최근 수년간 종래 몇명의 ‘참모 기술성원’이 하던 기술관리를 직장(職場, 생산공장)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개선했으며 “모든 기술혁신 사업과 생산 공정들의 기술지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품질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맡은 품질관리과를 설치했다고 설명
 - 부지면적 10정보(9만9천㎡), 건평 2만㎡ 규모로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입체다리 인근에 자리 잡은 대동강맥주공장은 2002년 5월부터 주정 5.6%의 생맥주를 생산해 단숨에 북한 애주가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해부터는 12도 맥주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당분이나 단백질 함량을 낮춘 10도짜리 라이트형 맥주를 개발·보급중임. 평양시내에는 생맥주 판매점인 ‘대동강 맥주집’이 200여곳 성업 중
 - * 북한에서는 대동강맥주공장 외에도 평양맥주공장과 룡성맥주공장 등 4~5곳에서 맥주를 생산

- **팔씨름하면 뇌 노화 지연(5/7, 조선중앙TV)**
 - 팔씨름이 뇌의 노화를 늦추는 데 매우 효과가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7일 보도

- **제3차 건축미학 토론회 개최(5/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7일 평양대극장에서 제3차 건축미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이 8일 보도, 토론회에는 전승훈 내각 부총리와 김성일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장, 조승무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백태삼 인민경비대 장령(장성), 박 우 백두산건축연구원 부원장, 리주를 함경남도 도시설계연구소장, 박희건 평양건재공장 지배인, 김철수 평양정보센터 실장, 신웅선 국가건설감독성 국장 등이 참석

- **설비관리법 제정(5/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근 설비관리법을 채택하는 정령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 법의 제정 목적에 대해 “설비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설비의 이용률을 높이고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



데 이바지할 목적 밑에 채택됐다”고 밝힘.

- **선군시대에는 선군음악을 창작(2008년 1월호, 사회과학원 학보)**
 -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근호(2008년 1호)는 ‘우리 당의 음악정치는 선군음악이 창조될 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고 “선군시대는 자기 시대에 맞는 음악을 요구하며 선군음악은 선군시대를 반영하게 된다”며 선군음악의 창작을 촉구
 - 잡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민대중의 투쟁의욕과 건전한 혁명정신을 마비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는 오늘의 정세에서 무의미한 자연이나 노래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이나 보여주는 음악은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에 길을 열어주는 해독적인 작용을 한다”며 음악에서 “혁명성”을 강조
 - 잡지는 선군음악을 “선군시대를 반영하고 그 시대에 이바지하는 음악”으로 정의하면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투쟁과 생활의 근본 바탕을 체현한 자주적 인간의 사상 감정을 형상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
- **조선초기 사찰 석왕사 복원 추진(5/7, 조선중앙통신)**
 - 6.25전쟁 당시 일부가 소실된 북한 강원도 고산군 설봉산 기슭의 석왕사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의 문화유물 94호로 지정된 석왕사는 14세기 말인 조선 태조 때 세워진 사찰로, 6.25전쟁 때 대웅전을 비롯한 많은 건물이 소실되면서 불이문, 호지문 등 몇 동만 남아 있는 상태임.
- **中 고구려사 왜곡 ‘성토’(2008년 1월호, 사회과학원 학보)**
 - ‘사회과학원 학보’의 최근호(2008년 1호)에서 사회과학원의 손영중 교수(후보원사, 박사)는 “고구려사는 조선민족사의 한 부분이며 고구려는 조선 중세의 자주적인 독립국가였다”면서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을 일일이 비판, 손 교수는 먼저 “일부 다른 나라 학자들이 고구려가 시종일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 또는 속국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들이 내놓은 이론적 원칙이나 그 밖의 근거들은 다 과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아전인수격 견해들”이라고 일축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성 김, ‘북핵자료 박스’ 들고 귀환(5/10, 연합뉴스)**
 - 지난 8일 방북, 북한 측과 핵프로그램 신고 협의를 진행한 성 김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이 10일 오전 11시 10분께 ‘핵 관련 자료’로 보이는 박스 7개를 직접 휴대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



- 성 김 과장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조사해봐야겠다”고 말한 뒤 일행들과 함께 서울로 향함. 성 김 과장은 판문점에서 서울 소재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직행한 것으로 알려짐.

● **북·미 식량지원 협상 잘 진행(5/8, 조선중앙통신)**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북미간 협의가 “진지하게 잘 진행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통신은 “미국 식량협상 대표단이 5일부터 8일까지 조선(북한)을 방문하였다”며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에 인도주의적 식량제공 문제에 관한 협상이 있었다”고 보도
- 미 정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 50만t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원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에 관해 북한 당국과 협의중임. 북한 매체가 미 정부의 식량지원 협상 대표단의 방북 사실을 보도한 것은 처음임.

● **공식활동 들어간 신임 유엔주재 北대사 신선호(5/8, 연합뉴스)**

- 7일(현지시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신임장을 제정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신임대사는 30여년간 외무성에 근무한 베테랑 외교관임.
- 1948년 황해남도에서 태어난 신 신임대사는 짐바브웨 대사관에서 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1996년 외무성 과장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를 역임, 신 신임대사는 부임 전에 외무성에서 국제기구 업무를 담당하는 부상급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짐.

● **美 “한반도 주변 무력증강” 집중 비난 속 대미관계 개선의사 강조(5/6,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그들(미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 비핵화를 바라지 않으며 무력으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지배하려는 야망에 변함이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대화과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원칙적 입장”이라며 대미관계 개선 의지도 함께 강조

나. 북·중 관계

● **베이징서 北미술전 개최(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고(故)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과 인민군 창설 76주년(4.25)을 기념한 ‘백호’ 미술전시회가 4월 25~2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뒤늦게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전시회에 각종 조선화(동양화)와 유화, 보석화, 수공예품이 소개됐다면서 개막식에 베이징국제우호연락회 부회장과 중국세계평화기금회 대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 조선백호무역회사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고 보도

● **中 무역촉진위 대표단 방북(5/10, 조선중앙통신)**

- 중국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국제상회 대표단이 9일 제11차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쉬쿤위안(許坤元) 회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방직공업협회 대표단도 같은 날 방북했다고 보도

● **中 리창춘, 北 노동신문 대표단 면담 (5/9, 신화통신)**

- 리창춘(李長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9일 북한 관영 노동신문 대표단과 면담, 김중협 노동신문 책임주필 등이 중국 런민(人民)일보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보도, 리 상무위원은 “중·북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중국은 새로운 상황을 맞아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풍부하게 할 태세가 돼 있다”고 언급
- 5월 6일 방중 일정을 시작한 김 주필 일행은 10일까지 베이징에 머물 예정

● **후진타오, 김정일 ‘열차사고 위문’에 답전(5/7, 조선중앙방송)**

-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열차 충돌 사고에 위문 전문을 보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 사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7일 보도

● **北 김영남, 베이징올림픽 성공 기원(5/6, 중국신문사)**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 인민의 일은 바로 조선 인민의 일(中國人民的事情就是朝鮮人民自己的事)”이라며 베이징(北京)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6일 보도, 김 상임위원장은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은 똑같이 베이징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축원하고 있으며 이번 올림픽이 양국 인민의 친선강화와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

다. 북·일 관계

● **일본 동포방문단 방북(5/10, 조선신보)**

- 일본 효고(兵庫)지역 동포방문단이 4월 30일부터 5월 7일까지, 오사



카(大阪)지역 동포방문단과 북·일 우호대표단이 5월 3~7일 북한을 방문해 평양 주체사상탑과 대동강맥주공장, 통일거리시장, 김책공업 종합대학 전자도서관, 판문점, 개성시내와 영통사 등을 돌아봤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라. 북·러 관계

●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 평양시내 해방탑 헌화(5/9, 조선중앙통신)

-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 관계자들이 2차 세계대전 종전 63주년을 맞아 평양시내의 해방탑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총리, 러시아 푸틴 총리에 축전(5/9, 조선중앙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가 러시아 총리로 임명된 블라디미르 푸틴 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김영일 총리는 축전에서 앞으로 양국 관계가 강화, 발전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힘.

● 러시아 대통령 취임 간략 보도(5/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42) 러시아 대통령이 5월 7일 새 대통령으로 취임한 사실을 아무런 논평 없이 짧막하게 8일 보도

● 北 현대미술전 발트3국-러시아 순회(5/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현대미술 전시회가 '발트3국'으로 불리는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를 거쳐 러시아에서도 개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응용미술박물관에서 지난 1월 25일 개막된 북한 현대미술전이 애초 4월 20일까지 열릴 계획이었으나 6월 9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고, 이후 라트비아의 리가, 에스토니아의 탈린, 이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열릴 전망

● 北, 남·북·러 철도연결 전 세계의 관심(2007년 5월호, 조국)

- 북한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위한 철도 설계검사를 끝냈다고 북한 철도성의 김 철 부상이 발표
 - 북한과 러시아는 4월 24일 라진-하산간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TSR을 통한 국제화물 수송을 담당할 합영기업 설립에도 합의
 - 이와 관련, 김 부상은 "조선반도의 북남과 러시아연방을 통한 이 교통로가 완비되면 우리 나라와 중앙아시아 나라들, 유럽 나라들 사이에는 '친선의 다리'가 놓이게 될 것"이라면서 "여러 나라들 사이 경제교류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10·4(남북정상)선언의 이행을 위한 일환으로 북남 사이 진행된 여러 갈래의 회담들에서 철도 연결과 공동 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후 이 사업은 현재 온



겨레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속에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지난해 12월 개성-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이 시작된 데 이어 개성-신의주 사이 철도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실무적 조치로 개건보수 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임.

마. 기타외교 관계

● 北, 선박 관련 국제회의 개최 예정(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에서 선박의 기술과 선급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릴 예정, 조선중앙통신은 “배기술 검사 및 선급 제정국제연맹 정기회의에 참가”를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선박등록국 대표단, 폴란드 선박등록국장, 중국 선급사대표단, 베트남 선박등록국 대표단, 쿠바 선박등록국 대표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

● 싱가포르 대통령, 김정일에 친서 전달(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싱가포르 조지 여 외교장관이 12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S.R.나단 대통령의 친서와 선물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또 이날 북한 박의춘 외무상과 싱가포르 조지 여 외교장관은 만수대 의사당에서 외교부 간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

● 양협섭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 베트남 외교부대표단 면담(5/9, 조선중앙통신)

- 양협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의춘 외무상이 9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부중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외교부 대표단을 각각 만나 환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대표단은 이날 양 부위원장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며 방북 일정을 마치고 항공편으로 귀국

● 짐바브웨에 의사 22명 파견(5/9, 짐바브웨 관영지 더 크로니클)

- 북한이 짐바브웨에 의사 22명을 파견했다고 짐바브웨 관영지 더 크로니클이 9일 보도, 이들 의료진은 북한과 짐바브웨 간 협정에 따라 파견됐으며, 3년 간 머물며 의료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신문은 보도

● 北·베트남, 외교 협조 합의서 조인(5/8,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과 베트남 외교부간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8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조인식에는 북한측에서 김영일 외무성 부상과 관계자들이, 베트남측에서는 부중 차관을 단장으로 한 베트남 외교부대표단 관계자들과 레 반 꾸 북한 주재 베트남 대사가 참석, 합의서에는 김영일 부상과 부중 차관이 서명



- **정부, 민간대북사업에 100억여 원 지원(5/11, 연합)**
 - 정부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를 열어 2008년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약 100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할 예정
 - 통일부는 지난 2월께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로부터 일괄적으로 총 62건의 협력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 이후 심사를 진행해왔음. 정부는 범 정부 차원의 예산절감 기조와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협력기금 사용 투명성 문제 등을 감안, 올해는 작년 지원 규모인 117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0억원대의 기금을 민간단체들에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짐. 특히 정부는 민간단체의 자체 조달액수만큼 지원하는 이른 바 '50 대 50'의 매칭펀드 원칙을 가급적 적용하고 기금 사용 투명성 문제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단체들에 대해서는 지적 사실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정할 것으로 알려짐.

- **北, 대통령이 '6·15이행' 천명하면 남북관계 완화(5/10, 연합)**
 - 민화협 방북단은 5월 7일 방북, 평양시 중화군 양묘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10일 오후 귀경
 -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충복 민화협 부위원장이 "남측 최고당국자가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면 경색 국면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언
 - 북측의 이충복 부위원장은 "인수위 시절에는 우리(북쪽)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건드리지 않고 있었는데, 핵문제와 개성공단을 연계시키거나 선제타격을 운운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는 '정당방위' 입장을 고수했다고 정 전 장관은 설명, 또 이 대통령의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대해 "난 데 없는 소리다"라며 이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전하고 "북측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공식 조건으로 '6·15 공동선언의 온전한 이행 선언'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인순이, 금강산 단독 콘서트(5/8, 뉴시스)**
 - 데뷔 30주년을 기념, 전국 투어 중인 가수 인순이(51·사진)가 15일 오후 7시 금강산 관광특구 야외공연장에서 콘서트를 개최. 이날 금강산 공연 장비들은 육로를 통해 현지로 이동하며 출연진과 스태프 등을 포함, 참가 인원도 100명이 넘음.

- **남북 언론인, 3개항 결의(5/8, 연합)**
 -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분부는 8일 북쪽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서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와 '남북 언론인 대표자 회의'를 갖고 "다양한 형태의 기사 교류"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6·15 시대를 지켜선 통일 언론 조직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기사교류와 연대활동을 통해 6·15 통일시대를 앞장에서 선도



해 나갈 것” 등 3개항으로 구성된 결의문을 채택

- 회의에는 남측에서 언론본부 공동대표인 김경호 한국기자협회장과 정일용 연합뉴스 논설위원, 양승동 한국PD연합회장 등 27명이 참석했으며 북측에서는 조충한 언론분과위 부위원장, 홍동철 민주조선 부주필, 정명순 조선중앙방송 국장 등 26명이 참석

● **통일부 장관, 국방위원장 호칭 필요하면 붙일 것(5/8, 연합)**

-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호칭 표기와 관련, “필요한 경우 (국방위원장 호칭을) 붙이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호칭을) 안붙일 것”이라고 밝힘.
- 김 장관은 이어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 “대북정책은 상생공유 정책”이라며 “북한과 대화를 하고 핵 문제에 대해 많은 진전을 이루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 측면에서 협조하고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힘.

● **5월부터 금강산서 스카이라이프 시청(5/8, 연합)**

- 디지털위성방송 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는 4월에 금강산 아난티 리조트의 130여 객실에 스카이라이프 수신설비를 설치한 데 이어 5월 중순부터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8일 밝힘. 금강산 아난티 리조트는 14일 개장
- 이로써 북한 지역은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에서도 스카이라이프가 제공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음. 스카이라이프는 현대아산과 계약을 맺고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960여 대의 위성방송 수신기를 설치

● **남북 교인, 7월 평양 봉수교회 헌당예배(5/7, 연합)**

-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산하기관인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관계자는 7일 “봉수교회 헌당예배를 7월 중순 남측 교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 계획”이라며 헌당예배 일정을 남북한 당국 및 조선그리스도교연맹(조그련)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
- 평양의 일부 주민들과 외국인 신자들이 예배를 보는 것으로 알려진 봉수교회는 김 주석의 지시로 1988년 평양에 건립됐으며, 예장통합과 전국연합회가 북측에 40억원가량의 자재를 지원해 연건평 600평에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 이에 따라 예배실이 300석 규모에서 1천200석으로 늘어났고, 예배순서와 찬송가 가사를 보여주는 대형 화면과 외국인 신자를 위한 동시통역기 등 첨단 음향, 영상설비가 설치됨.

● **평양 의학과학토론회 개최…남측 불참(5/7, 조선중앙통신; 연합)**

- 제10차 평양 의학과학토론회가 5~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 남측 의료관계자들은 2003년 제5차 토론



회에 처음 참가하고 2006~07년 대표단을 보냈으나 올해는 토론회 참가가 무산

-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료대표단 방북을 추진해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관계자는 “지난해 북측이 남측의 제10차 토론회 참가에 합의했었지만, 최근 (남북관계) 정세를 들어 남측이 참가하기 힘들 것 같다고 전해왔다”고 전언

● **금강산 골프장, 14일 정식 개장(5/6, 연합)**

- 금강산관광특구에 건설된 금강산 골프장이 오는 14일 부대시설을 모두 완공하고 정식 개장, 통일부 당국자는 6일 “금강산 골프장의 코스와 골프텔, 클럽하우스 등 부대 편의시설이 완공돼 5월 14일 정식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지 사정으로 다소 지연될 수도 있다”고 밝힘. 또 “골프장 회원권이 1천800개 정도 판매됐다”면서 “14일 오픈하면 회원 위주로 하루 30팀 정도가 골프장을 이용하고 7월부터는 일반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
- 금강산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캐디) 60명을 포함, 북한 인력 200여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2005년 12월 30일 사업 승인이 난 금강산 골프장은 코스 전장 7천547야드(파73)에 18홀 규모로 에머슨퍼시픽 그룹이 운영을 담당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성 김, '북핵자료' 들고 귀국(5/12)

- 지난 8~10일 평양을 방문, 북한과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협의했던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12일 오전 미국으로 돌아갔음. 성 김 과장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1986년 이후 영변 원자로 가동일지를 비롯한 1만8천쪽 분량의 자료를 직접 들고 이날 귀국했음.
-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건넨 자료가 추후 검증작업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토에는 수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

● 네그로폰테 訪中, 북핵문제 논의(5/12)

- 북한이 미국에 핵 관련 문서를 제출한 직후 이뤄진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이번 방중에서 중미 양국은 북핵 6자회담의 재개 시기 등 진전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날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잇따라 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해 이란 핵문제, 미얀마의 홍수 참사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한다고 AP통신이 전했다.

● “北무역회사, 시리아에 원자로 부품 공급”(5/11)

-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유럽의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 북한 무역회사 남춘강(대표 윤호진)이 중국과 유럽 등에서 원자로 핵심 물질과 부품을 구입해 시리아 알-키바르 마을 인근의 원자로 건설 현장에 공급하는 등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 시리아는 지난해 9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파괴된 시설이 핵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폭격 이후 잔해 제거과정에서 감춰뒀던 일부 원자로 부품 증거물들이 노출됐다고 미국 관리들은 밝혔음.
-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남춘강이 중국 무역회사를 통하거나 외국 회사들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 (북한 당국의) 무역 대리인 또는 중개자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음.

● 북핵 신고서에 플루토늄 ‘사용처’도 포함(5/11)

-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플루토늄 양도 신고서에 담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져 핵탄두(핵폭발장치) 개수를 구체적으로 신고하



지 않더라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한 플루토늄 양을 바탕으로 핵탄두 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에게 '30~31kg' 가량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밝히면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어디에 사용했는 지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11일 전했다.

● “라이스 방북은 없을 것”<RFA>(5/11)

-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라이스 장관이 북한이 핵 시설을 철거할 때 북한을 방문 할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으나 라이스 장관의 북한 방문은 거론되지도 않고 있고 현지점에서 생각도 않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RFA는 이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일단 해제되면 주로 중동지역 테러단체들에 대한 무기 수출과 지원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는 취지의 테러지원국해제 이후 북한의 적극적인 테러지원 활동을 염려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내주 미 의회와 행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CRS관계자를 인용해 밝혔다.

● 美국무부 “北핵자료 인수...철저 검증할 것”(5/10)

- 미국은 북한으로부터 1만8천쪽에 달하는 핵 관련 문서를 넘겨받았으며 검증팀과 전문가들이 이의 정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10일 밝혔다.
- 국무부는 이날 손 매코맥 대변인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북한은 5월 8일 평양에서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이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에 약 1만8천쪽의 핵프로그램 관련 문서들을 제공했다”고 공개했다.
- 북한 측은 이날 제공한 자료는 “5MW 원자로와 북한이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한 영변 핵시설의 연료재처리공장 가동 기록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 국무부는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데 이어 3개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에 착수, 모두 11개 불능화 작업 가운데 8개는 이미 완료됐으며 폐연료봉도 5월 중순 현재 3분의 1 가량을 성공적으로 인출했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용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정지됐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 “北 신고서 40~50쪽...곧 중국에 제출”(5/10)

- 북한이 조만간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할 핵 신고서는 일반 문서로 대략 40~50쪽에 달하며, ▲플루토늄 추출량 ▲플루토늄 추출과정과 직결되는 핵시설의 가동 일지 ▲핵 활동 관련 시설 목록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은 최근 두 차례 방북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에게



‘30~31kg’ 가량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밝히면서 ‘가동일지 등을 분석해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도 30kg 정도의 플루토늄 추출량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은 북한의 핵 관련 자료를 검토해 플루토늄 생산량에 대한 1차 검증이 끝나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의 공식 신고서 제출과 병행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 美태평양사령관 “북핵 협상에 신중한 낙관”(5/10)

- 티모시 키팅 미 태평양사령관은 9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인터뷰에서 자신은 “미 국무부의 대북 협상팀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간 핵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국무부 협상팀의 보고를 통해 북한과의 협상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성 김, ‘북핵자료 박스’ 들고 귀환(5/10)

- 지난 8일 방북, 북한 측과 핵프로그램 신고 협의를 진행한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10일 오전 11시 10분께 ‘핵 관련 자료’로 보이는 박스 7~8개를 들고 관문점으로 귀환. 성 김 과장은 기자들에게 “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조사해봐야겠다”고 말한 뒤 일행들과 함께 서울로 향했음.

● 성 김 과장이 들고온 ‘핵 보따리’ 내용은(5/10)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일행이 8~10일 북한에 체류하면서 한 활동은 북한이 조만간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할 핵 신고서의 내용에 대한 최종협약과 이른바 ‘1차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건네 받은 것으로 요약됨.
- 외교가의 전언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북·미 협의를 통해 정리된 핵 신고서(중국에 제출하는)의 골자는 ▲플루토늄 생산 관련 핵 시설 ▲그동안 추출한 플루토늄 총량 ▲5MW 원자로 가동일지를 비롯한 핵 관련자료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방국,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촉구(5/10)

- 2010년 핵비확산조약(NPT) 전체 평가회의를 준비하는 제2차 준비위원회 회의는 9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의장 워킹 페이퍼를 보고받고 2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음.
- 의장인 볼로디미르 엘셴코 우크라이나 대사가 제출한 워킹 페이퍼에서 북한에 NPT 체제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주제네바 관계자가 전했다. NPT 당사국들은 아직까지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도 정확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데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을 상대로 조속하고 전면적인 신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음.



- “北 빠르면 다음주 핵관련 기록 中에 제출”<WT>(5/9)
 - 북한이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관련 기록을 빠르면 다음 주에 제출할 수 있으며 6자회담도 관련 기록이 제출되는 시기와 맞물려 개최될 것이라고 워싱턴 타임스(WT)가 보도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는 아마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관련 기록을 제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플루토늄) 기록은 6자회담 논의 과정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英하원의원단, 북핵문제 등 조사차 방한(5/9)
 - 영국 하원 외무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북핵문제와 국제안보 및 평화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3~15일 방한한다고 주한영국대사관이 밝혔다.
 - 영하의원그룹 회장인 존 스탠리 경을 단장으로 하는 영국 하원의원단은 방한 기간 ▲국제안보 및 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 한국의 기여 ▲북한 핵프로그램과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 ▲남북관계 ▲남북한, 일본 3국과 유럽연합(EU)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한국 등과의 외교·경제·문화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영국 외무부의 업무 효율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대사관측은 전했다.

- “北 핵자료 제출은 성실성 1차 증거”(5/9)
 -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자료의 성격에 대해 “지금까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관련된 핵 시설(5MW원자로, 연료봉제조공장, 방사화학실험실, 폐기물처리공장 등) 운행에 대한 자료이며 그 내용이 완벽한지, 아니면 일부분인 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학적 검증절차에 돌입해 분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신고 뒤에 할 검증의 밑자료를 먼저 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검증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며 검증절차에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모두 참여한다”고 말했다.

- 北核문제 새국면...北, 핵관련 기록 美에 넘겨(5/9)
 - ◇미, 북한이 넘긴 자료의 신빙성·유효성 파악에 우선 주력할 듯 = 미 국무부는 8일 방북중인 성 김 한국과장이 북한측으로부터 영변원자로의 과거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공식 확인했다.
 - 손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우리는 앞으로 수주 간 이들 문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아주 세밀하게 이 과정을 끝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 ◇북,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가시화되나 = 북한이 북한 핵관련 자료를 미국에 넘김에 따라 미국도 ‘행동 대(對) 행동’원칙에 따라 6자회담에서 합의한 약속사항을 이행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부시 대통령이 북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의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 ◇이달 말 6자회담서 북핵 3단계 로드맵 제시될 듯 = 이런 과정이 큰 무리 없이 이행될 경우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달 말께 베이징에서 회의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

● “美한국과장 핵신고서 받으려 평양행”<RFA>(5/8)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의 이번 방북 목적은 “북한측으로부터 핵신고서 문건을 받아오기 위한 것”이라고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
- RFA는 “북한은 평양을 방문하는 성 김 과장에게 핵신고서 문건을 건네주고 테러지원국 해제 등 조속한 후속조치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이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한국과장은 “성 김 과장의 방북 결과물을 의회와 언론,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지만, 미국 대표단이 북한에서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이 한·중·일을 순방하는 등 흥미로운 일이 연속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 정부가 이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분석

● “美, 북핵폐기 3단계서 인권문제 제기”<갈루치>(5/7)

-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북핵 폐기 3단계 협상과정에는 미·북 사이 여러 정치적 교류와 관련된 일들이 계획돼 있지만 “북한의 인권위반 상황이 계속되는 한 미국은 북한과 정치적 교류를 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
- 그는 지난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가리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미북간 정치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미국과 북한간 관계 개선에 ‘조건’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고 RFA는 보도

● “美, 핵신고 ‘검증수단’ 확인에 주력”(5/7)

-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할 공식신고서에 플루토늄 항목과 관련, ▲1990년대 초부터 가동되기 시작한 영변 원자로의 가동일지를 포함한 자료 수천건 ▲핵심 핵시설 ▲플루토늄 총량을 주내용으로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특히 이를 검증하기 위해 원자력과학자들로 북·미간 실무교



를 구성하거나 또는 6자회담 산하 실무그룹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나라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협력 의혹설에 대해서는 북·미 전문가회의를 가동하거나 6자회담 실무그룹을 통해 주로 현재, 미래의 북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 일본인 납북문제, 핵신고 막판 변수되나(5/6)

- 외교 소식통은 6일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있어 북한이 성의를 보여줘야 테러지원국 해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이 문제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와 관련, 조만간 재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북측과의 협상에서 북한의 핵신고 검증 문제 외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어느 정도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일정이 명확해진다는 점을 북측에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 외교 소식통은 “성 김 과장은 주로 북한이 신고할 사항에 대해 검증과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재차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6자회담서 대북지원 패키지 발표 가능성”<RFA>(5/6)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관한 북미간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달중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북핵 6자회담에서 식량을 포함한 대북 지원 ‘패키지’가 발표될 것이라고 북미간 “협의에 정통한 소식통”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이 소식통은 이날 평양에 도착한 미국정부의 방북단과 북한 당국간 협의 전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 “美, 핵신고서에 日인 납치문제 포함 요구”<RFA>(5/6)

-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재방북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핵신고서에 넣기 위해서”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
- 방송은 “이번 주 북한을 다시 방문하는 성 김 과장은 북측과 협상에서 북핵 검증문제 외에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어느 정도 진전시키느냐에 따라 앞으로 핵신고와 테러지원국 해제 등의 일정이 명확해진다는 점을 북측에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



나. 미·북 관계

- “美, 이달 중 대북 식량지원 결정할 듯” <美구호단체>(5/9)
 - 미국 정부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 당국과 식량 지원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민간 대북 구호단체인 ‘월드비전’의 빅터 슈 북한담당 국장은 미국 정부가 이달 중 대북지원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 보도
 - 슈 국장은 VOA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와 북한 당국 사이에 그동안 세 차례의 협의를 통해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은 이제 식량 지원 추진 여부를 결정할 시점에 도달했으며, 이달중 관련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부시, 北자료 검토 후 테러지원국 제외 요청할 듯” <WSJ>(5/8)
 -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이번 주 안에 영변 원자로의 모든 가동기록을 담고 있는 서류 상자들을 부시 행정부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자료제공이 북한과 시리아 핵 협력설로 궁지에 몰려 있는 부시 행정부 내 온건파에게 예상치 못한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교착상태에 있는 6자회담의 재개를 불러올 수 있으며 국무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널은 평가
 - 저널은 힐 차관보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검증 전문가를 협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것은 북핵협상이 사기임이 드러날까 우려하기 때문이며 이는 또한 힐 차관보가 부처 간 협의절차를 우롱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신랄하게 비판

- “북·미 식량지원 협상 잘 진행” <北매체>(5/8)
 -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북미간 협의가 “진지하게 잘 진행됐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 “미국 식량협상 대표단이 5일부터 8일까지 조선(북한)을 방문하였다”며 “방문기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에 인도주의적 식량제공 문제에 관한 협상이 있었다”고 말했다.
 - 미 정부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 50만t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원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제에 관해 북한 당국과 협의하고 있음.

- 매케인, 북한 등 ‘종교탄압국’ 비판(5/8)
 -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7일 자신이 대통령에 선출된다면 종교의 자유를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매케인 의원은 이날 미시간주 오클랜드대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자유로운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보다 더 기본적인 권리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 매케인은 특히 “중국, 이란, 버마(미얀마), 수단, 북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감옥안 또는 우리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앞에서 수 만명의 사람들이 단지 종교를 믿는다는 죄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앞으로 미국이 관여하는 양자 협상에서든, 여러가지 다자기구에 서든 종교자유의 기본원칙을 국제관계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

● **북한 등 8개국 ‘최악 인권국’ <프리덤하우스> (5/7)**

- 미국의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6일 보고서에서 쿠바, 리비아, 미얀마, 북한, 소말리아,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최악의 인권국가’로 지목했음.
-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90개국은 국민에게 기본적인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103개국은 자유 민주주의 수준에 미달하는 나라라면서 특히 이들 8개국과 2개 지역 주민이 “극심한 억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

● **“WFP대표단 13일 방북...식량난 논의” <RFA> (5/7)**

- 토니 밴버리 아시아국장을 대표로 한 세계식량계획(WFP) 협상단이 13일 방북한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보도
- RFA에 따르면 폴 리슬리 WFP 대변인은 WFP의 방북 계획을 밝히면서 “현재 진행중인 대북 지원사업을 재검토하고 북한의 명백하고 시급한 식량부족에 관해 논의할 것”이고, 특히 “국제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WFP의 대북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핵심 쟁점은 미북간 협상과 마찬가지로 WFP가 지원하는 식량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는지를 감시할 모니터링 절차와 모니터링 요원 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

● **美 대북인권특사 “대북 인도지원 중요” (5/7)**

- 제이 레프코워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6일 “잠재적 기아위기에 직면한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긴급하다”고 밝혔다. 레프코워츠 특사는 이날 워싱턴에서 동아일보와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공동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공여국은 분배모니터링을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북한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한국과 중국은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주장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탈북자 문제와 관련, 그는 “아직도 중국에 탈북자가 최대 10만명 숨어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중국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이 탈북자들에게 더 많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中 리창춘, 北 노동신문 대표단 면담(5/10)

-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김중협 노동신문 책임주필 등이 중국 런민(人民)일보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 중이라며 보도
- 리 상무위원은 “지난 60년 간 중국과 북한의 우호 협력이 양국 사회주의 건설과 지역 평화와 안정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말했음. 그는 “중-북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중국은 새로운 상황을 맞아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풍부하게 할 태세가 돼 있다”고 말했음.

● 北학술지, 中 고구려사 왜곡 ‘성토’(5/7)

- 7일 입수된 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원 학보’의 최근호(2008년 1호)에서 사회과학원의 손영중 교수(후보원사·박사)는 “고구려사는 조선 민족사의 한 부분이며 고구려는 조선 중세의 자주적인 독립국가였다”면서 동북공정의 역사왜곡을 일일이 비판
- 그는 “세계의 식견있는 역사가들치고 오늘의 중국 동북지방이 태고적부터 중국 땅의 일부였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날의 여러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역사주의 원칙에서 옳게 해명하는 것은 현 시기 나라와 민족간 친선과 우의, 자주와 평등을 보장하고 공존공영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

● 北김영남, 베이징올림픽 성공 기원(5/6)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 인민의 일은 바로 조선 인민의 일(中國人民的事情就是朝鮮人民自己的事)”이라며 베이징(北京)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했다고 중국의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6일 보도
- 김 상임위원장은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은 똑같이 베이징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축원하고 있으며 이번 올림픽이 양국 인민의 친선강화와 세계평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통신은 전했다.
- 류 대사는 이에 대해 “열정적인 평양 올림픽 성화봉송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견고해지는 중조 우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이번 성화봉송을 계기로 중조 우호협력 관계가 새로운 대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中후진타오, 北김정일에 ‘구두친서’(5/6)

- 조선중앙방송은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가 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방문, 후 총



서기가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내는 “구두친서와 따뜻한 인사”를 전달했다고 전함.

- 방송은 ‘구두친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후 총서기의 직함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을 붙이지 않은 채 ‘총서기’로만 불렀음. 후 총서기는 지난해도 김정일 위원장에게 3차례 구두친서를 보내 북·중 양자간 우호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 면담에서 류 대사는 평양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성화 봉송행사를 “성심성의껏 도와준 조선의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사의를 표한다”면서 “이번 행사를 통해 중·조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됐다”고 말했다.

라. 러·북 관계

● “北 인부 1명 사할린 목재회사서 餓死”(5/8)

- 러시아 극동 사할린의 한 목재회사에서 일하던 북한 인부 1명이 회사측으로부터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해 굶어죽은 채 발견됐다고 인터넷팩스 통신이 7일 사할린 이민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
- 이 인부의 시신은 2주 전 사할린 섬 외딴 곳에서 이민국 관리들에 의해 수습됐으며, 당시 심각한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인 동료 인부 1명도 함께 발견됐음. 사할린 이민국 책임자인 올가 사브첸코는 “문제의 목재회사는 지난해 8월 자사 중장비들을 지키기 위해 북한인 인부 2명을 사고지에 보냈다”면서 인부들은 그동안 소량의 식량만 제공받은 상태에서 잊혀진 채 지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남-북-러 철도연결 전 세계의 관심”<北철도성 부상>(5/7)

- 북한 철도성의 김 철 부상은 7일 입수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월간지 ‘조국’ 5월호와 인터뷰에서 “북남 철도연결 사업과 함께 시베리아(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사업도 하나하나 진척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하고 “우리나라(북한) 라진항으로부터 러시아 연해 변강(변경) 하산까지 55km에 달하는 철도구간의 개건을 위한 요해(파악)사업이 완료됐다”고 말했다.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라진-하산간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TSR을 통한 국제화물 수송을 담당할 합영 기업 설립에도 합의했음.

● 北 현대미술전 발트3국-러시아 순회(5/7)

- 7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의 응용미술박물관에서 지난 1월25일 개막된 북한 현대미술전이 애초 4월20일까지 열릴 계획이었으나 6월9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고, 이후 라트비아의 리가, 에스토니아의 탈린, 이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열릴 전망



마. 기타

● 北-베트남, 무역·투자 협력 합의서 서명(5/10)

- 북한과 베트남은 상호 무역과 투자에 관한 협력 증진에 합의했다고 베트남통신 보도. 지난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귀국한 부 중 외교부 차관의 말을 인용해 “양국은 상호 무역 투자와 문화 스포츠 교류 증진에 협력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 중 차관은 “북한 김용일 외무차관과의 회담에서 무역과 투자 및 문화 스포츠 교류 증진에 관해 합의했으며 지역 포럼과 국제회의 등에서도 서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데 협력키로 했다”고 말했다.

● 싱가포르 외무장관, 北 공식 첫 방문(5/9)

- 싱가포르 외무부는 9일 조지 예오 외무장관이 10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
- 예오 장관은 북한 방문 기간에 박의춘 외무상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6자회담이 진전되기를 희망하는 싱가포르의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성공단과 남포항 등을 둘러볼 계획임. 예오 장관은 북한 방문을 마친 뒤 중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

● 北, 짐바브웨에 의사 22명 파견(5/9)

- 북한이 짐바브웨에 의사 22명을 파견했다고 짐바브웨 관영지 더 크로니클이 9일 보도. 이들 의료진은 북한과 짐바브웨 간 협정에 따라 파견됐으며, 3년 간 머물며 의료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데이비드 파라켈야타 보건 및 아동복지 장관은 “북한 의사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음필로병원, 하라레중앙병원 등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한·미 내일 대북 식량지원 협의(5/12)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2일 “외교부와 통일부 당국자로 구성된 대표단이 최근 방북해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온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미 간 협의 결과와 북한의 식량사정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파악된 정보는 남측의 대북 식량지원 계획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하겠지만 먼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기초를 유지해 오고 있어 이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식량난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지원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UFG서 ‘사이버전’훈련 강화”(5/11)

-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올해 UFG(을지포커스렌즈·UFG연습으로 명칭 변경)연습에서는 사이버 공격 훈련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훈련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전 대응센터의 전문가를 비롯한 각 군의 정보보호 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소식통은 “군 전산망에 접속을 시도하고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려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사이버상의 공격이 초국가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내부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미, 내일 북핵 실무협의를(5/9)

-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9일 “방북중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내일 판문점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다”면서 “내일 중 한국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문 대변인은 또 성 김 과장이 갖고 올 이른바 ‘핵 관련 자료’와 관련, “구체적인 것은 미측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핵 신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美, 유엔서 한국에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5/8)

- 마이클 S. 클러세스키 주제네바 미국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오후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회의에서 질의를 통해 권고
- 클러세스키 참사관은 “개인들을 자의적으로 체포·구금·위협하는 데 국보법의 모호한 정의가 남용 또는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한국 정부는 국보법이 한국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보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면서 “우리는 한국이 국보법의 남용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 북한 최명남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과 관련, “동족인 북의 인민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그 어떤 접촉이나 통신도 범죄시하고 있다”면서 국보법 폐지를 촉구했음. UPR 회의에서는 미국과 북한 이외 다른 국가들도 국보법을 국제 기준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네그로폰테 “한미, 전략적·강력한 동맹관계”(5/8)

-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8일 방한 중인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갖고 지난 달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북핵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
-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에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방문하게 돼 기쁘다”면서 “양국은 지금 매우 전략적이고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가

● 美레프코워츠 “韓·日, 대북방송 시설·자금 도와야”(5/6)

- 제이 레프코워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5일 미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정보차단에 대응해 대북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다른 정부들, 특히 한국과 일본도 방송시설 제공과 자금지원을 통해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 레프코워츠 특사는 미국 일간지 ‘뉴욕 선’에 기고한 ‘왜 북한 사람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탈북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거의 절반이 ‘불법’ 외국방송이 수신되는 무선방송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내 탈북자 숫자를 “10만명 이상일 수도 있다”고 추산하고 “동북아시아 정부들은 탈북 난민들을 돕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주한 中외교관 음주사고 의미 축소(5/8)

- 중국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자국 외교관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건과 관련, “이는 개별적인 사안”이라며 의미를 축소하면서 “이같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희망한다”고 8일 밝혔다.
- 7일 주한 중국대사관 광주영사관의 부영사 마모(45)씨는 광주에서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2시간 가량 불응하다 입건됐음.

● 제주도-中 산둥성 우호협력 협약(5/7)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국 산둥(山東)성 정부와 우호적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 제주도와 산둥성 정부는 지난 6일 중국 현지에서 서명한 양해각서에서 ‘상호평등원칙에 입각해 인적교류, 경제무역, 과학연구, 교육, 관광, 체육 등의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고 약속했음.

● 한·중 지방행정 국제세미나<행안부>(5/6)

-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수원은 7일 중국 칭화대(淸華大) 평생



교육학원과 공동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 전략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 세미나에서는 두 나라 지방행정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수도권 및 지방의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육성전략’, ‘해외 직접투자를 통한 한·중 경제협력방안’,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림.

다. 한·일 관계

● 日 대사 “‘독도문제’ 일본만의 입장있다”(5/9)

-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 서울대 사회대 교수회 의실에서 열린 강연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한국과 일본)는 함께 일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고 그런 것(독도 문제 등)들로 우리가 함께 일하는데 방해받아서 안된다”고 말했다.
- 그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고 동북아와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찬성하기 때문에 6자 회담에 열심히 참가 중”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비핵화를 이루고 납치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접 연결돼 있고 납치문제는 국내 정치문제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권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 미·중 관계

● 美, 中에 ‘腸바이러스’ 퇴치 지원(5/10)

- 마이크 리빗 미 보건장관은 다음 주에 있을 베이징 방문 기간 중국 보건·위생 관리들과 만나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전반적인 보건·위생 문제와 장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수족구(手足口) 확산사태에 대해 논의한다고 주중 미국대사관의 수전 스티븐슨 대변인이 9일 밝혔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 부총리는 이날 전국애국위생운동 위 회의에서 수족구병을 조기에 발견, 진단하고 신속한 보고 및 치료 체제를 갖추고 이 병의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

마. 미·일 관계

● “주일미군재편·FX 불협화음…미일동맹 흔들”(5/6)

- 주일 미군 재편 문제나 일본의 차세대주력전투기(FX) 선정과 관련한 이견 등으로 미국과 일본간의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 보도
- 일본측은 방미 의제에 ‘미군재편’을 포함하지 않고 일정 조정에 들어



갔으나 이에 미국측이 강력 반발하며 계획은 무산됐고, 양국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주일미군이 현재 사용하는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대체부지와 해병대의 광 이전이 지연되는 것임.

- 미국측은 현 상태로는 예정했던 2014년까지 미군재편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을 우려함.
- 일본은 차세대주력전투기 선정을 위해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의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미국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조지 부시 정권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북핵문제에 비중을 두다보니 일본측이 최대 현안으로 제기하고 있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사건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것임.

바. 미·러 관계

● 美, 러 무기상 바우트 테러혐의로 기소(5/7)

- 미국은 태국에서 붙잡힌 러시아 무기밀매상 빅토르 바우트(41)에게 4건의 테러혐의를 적용, 6일 기소했다고 BBC가 7일 인터넷판에서 전했다. 지난 3월6일 태국에서 미국 마약단소국(DEA)의 합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바우트는 현재 태국 수도 방콕 외곽의 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미국 송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음.
- AFP통신에 따르면 바우트에 대한 소장에는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에 수백만 달러 어치의 무기판매 기도 ▲미국인 살해 음모 ▲미군 살해 음모 ▲지대공 미사일 구매 및 사용 기도 혐의가 적혀 있음. 미국 뉴욕 지방법원의 마이클 가르시아 검사는 “바우트는 오랜 동안 국제 사회에서 세계 최고의 무기밀매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인식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우트의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은 합법적으로 항공운수 및 병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의 무죄를 주장

사. 중·일 관계

● 中 “후진타오 방일 성공적” 자평(5/11)

- 관영 신화통신은 후 주석을 수행한 양제츠 외교부장이 10일 오후 동행한 중국 기자들에게 ‘따뜻한 봄 나들이(暖春之旅)’란 이름이 붙은 이번 방일에서 큰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 주석 자신 역시 10일 “이번 방문은 기대했던 성과를 성취했다고 확신한다”며 “미래의 양국 관계를 더욱 밀접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 양 부장은 “이번 방일은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기대했던 결과를 이뤄냈다”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그 근거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10일 일본이 7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열리는 선진8개국(G8) 정상회의에 후 주석의 참석을 요청해 왔다고 보도함으로써 후 주석이 7월 일본을 다시 찾을 가능성도 점쳐



지고 있음.

● **후진타오, 오는 7월 또 다시 방일 검토(5/10)**

- 중국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10일 일본이 오는 7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 후 주석의 참석을 초청했다며 보도
- 일본은 또 올 가을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을 주최하고 싶다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참석 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일본과의 '전략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답변했음.
- 중국은 오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제7차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참석해 달라고 초청했으며 일본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대답했음.

● **후진타오 일본서 '핑퐁외교'(5/9)**

- 중국 신문들은 9일 후 주석이 8일 와세다대학 강연을 마치고 일본 여자탁구 선수인 후쿠하라 아이(福原愛), 중국의 '탁구여왕' 왕난(王楠) 선수와 탁구시합을 했다고 보도

● **中日, 매년 4천명 청소년 교류 합의(5/8)**

- 중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8일 앞으로 4년간 해마다 4천명 규모의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류와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
- 공동언론 발표문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전날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전략적 호혜관계'의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에 입각해 양국 정부가 공동성명에 담긴 뜻을 70개 항목으로 구체화
- 방위 분야에서도 차세대의 교류를 추진하기위해 자위대의 젊은 간부와 중국 인민해방군의 청년 장교를 매년 15명 정도 상호 방문하도록 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황사의 공동연구가 진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기로 했음.

● **"中日,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 큰 틀 합의"(5/8)**

- 중국과 일본 양국의 오랜 현안인 동중국해의 가스전 공동개발 문제와 관련, 최대 초점인 공동개발 해역에 대해 양국 정부간에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이 8일 보도
- 양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 출자방식과 이익배분 등에 대한 실무차원의 협상을 서둘러 빠르면 6월말 타결, 오는 7월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음.



● 中-日 정상회담…‘전략적 호혜관계’ 추진 합의(5/7)

- 일본을 국민 방문중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7일 오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 등 공동 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하고 ‘전략적 호혜관계’와 환경문제 협력에 관한 2건의 공동성명을 서명, 발표
- 공동성명은 특히 일본이 전후에 ‘평화 국가’로서 걸어온 과정을 중국이 처음으로 공동문서를 통해 긍정 평가하면서 전쟁과 침략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책임’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됨. 또한 양국간 협력의 수준을 지구촌 문제인 환경문제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양국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 中-日 ‘전략적 호혜관계’ 공동성명 요지(5/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 공동성명이란 제목의 문서를 발표
- ▲중일관계는 양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2국간 관계중 하나다. 전략적 호혜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양국의 평화공존, 세대우호, 호혜협력, 공동발전이란 숭고한 목표를 실현해 나가기로 결의한다.
- ▲쌍방은 3차례 공동문서 및 2006년 10월, 2007년 4월의 공동 언론 발표문에 담긴 공통 인식을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 ▲쌍방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하며 장래에도 계속 상호 이해를 깊이고 상호 신뢰를 구축,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세계에 있어서 좋은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 ▲일본측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의 발전이 국제사회에 큰 호기를 가져왔음을 적극 평가한다. 항구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져올 세계 구축에 공헌해 가려는 중국의 결의를 지지한다.
- ▲중국측은 일본이 전후(戰後),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견지하고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한 것을 적극 평가한다. 중국측은 일본의 유엔에서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고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층 건설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중일 공동성명(1972년)에서 표현한 입장을 계속 견지함을 재차 표명한다.
- ▲정치적 상호신뢰 증진, 인적·문화적 교류 촉진 및 국민 우호감정 증진, 호혜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헌, 글로벌 과제에의 공헌 등 5개항에 대해 쌍방이 대화와 협력의 틀을 구축해 협력해 나간다.
-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 방안으로 양국 정상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방문을 강화한다. 에너지, 환경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중점 추진한다. 공동 노력을 통해 동중국해를 평화·협력·우호의 바다로 삼는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위해 6자회담을 공동 추진한다. 중국측은



북한과 일본이 제 현안을 해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중국도 지구온난화 방지와 관련해 2013년 이후의 실효적인 기후변동 국제협약을 구축하는데 적극 참가한다.

● **中-日 우호관계 상징 ‘청년교류와 잔류고아’(5/8)**

- 중국의 관영CCTV는 이날 후 주석의 와세다(早稻田)대학 방문에 맞춰 지난 1984년 9월 일본 청년대표단 3천명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를 기록한 영상과 대표단의 일원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일본인들의 회고를 담은 기획 보도물을 내보냈음.
- 청년교류와 잔류고아는 전쟁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젊은 세대의 교류를 통해 양국이 불신의 벽을 뛰어넘고 세대를 이어 미래지향적으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양국의 의지를 담고 있는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음.

● **“중국인 對日 감정 긍정적 변화”(5/7)**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7일 허라이즌 컨설팅 그룹이 지난해 6월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10개 도시에 거주하는 3천181명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감정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 대한 선호도가 2005년과 2006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도
- ‘역사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된다’와 ‘역사문제를 제쳐놓고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 중 하나를 고르라는 문항에서는 2007년에 처음으로 ‘미래 지향’(49.7%)이 ‘역사문제 우선’(43.1%)을 제친 것으로 조사됐음.
- ‘일본이 중국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란 질문에는 ‘그다지 큰 위협은 아니다’가 44.9%로 가장 많았지만 ‘상당히 큰 위협이 된다’는 답변도 37.6%로 조사됐음.

아. 미·러 관계

● **러-美 민간차원 핵협력 서명(5/7)**

-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인 ‘로스아톰’의 세르게이 키리엔코 사장과 윌리엄 번스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모스크바에서 양국을 대표해 민간 차원의 원자력 이용에 관한 협정서에 서명
- 키리엔코 청장은 “이번 협정으로 양국은 원자력(핵) 협력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이며 핵 무기 비확산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협정 이전에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핵 물질과 장비도 러시아 국경을 넘어 올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됐으며 러시아 우라늄이 미국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



자. 기타

● 러시아 대통령 23일 중국 국민방문(5/8)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국민 방문한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중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中, 하이난도에 지하 핵잠수함 기지 건설 중” <디펜스뉴스>(5/8)

- 디펜스뉴스는 이날 국방관련 전문기관인 제인스가 발행하는 ‘인텔리전스 리뷰’를 인용, 위성사진 제공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찍은 하이난도 남단의 영상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지하핵잠수함 기지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의 핵잠수함 기지는 최대 20대의 핵잠수함을 은닉할 수 있는 광대하고 제임스 본드 스타일의 큰 건물이라고 디펜스뉴스는 전했다.

● “태국법원, 탈북자 도운 한인부부 처벌은 비인도적” <美인권단체>(5/8)

- 태국 법원이 탈북자들을 도운 혐의로 오세우 목사(59)와 부인 조복녀(60)씨에게 각각 벌금 1만바트(약 30만원)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미국내 한인인권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음.
- 워싱턴 D.C. 인근에서 활동 중인 아·태인권협회(회장 유천중)는 한국내 불법 체류 태국인의 수가 1만5천여명에 달하지만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 태국인을 도운 태국인들을 단 한번도 처벌한 사례가 없음을 적시하면서 “태국 정부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태국내에서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벌금을 물리지 말고 인도적인 면에서 선처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 李대통령 “한·호주 경제협력에 큰 기대”(5/8)

-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외국) 장관으로는 처음 한국을 방문하신 것”이라면서 “한·호주 양국간 경제 협력에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호주의 노력에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스미스 장관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을 적극 지지한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이 동북아 정세에 직결되는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 스미스 장관은 이어 “오는 7월 캐빈 러드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 분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한 뒤 러드 총리를 대신해 7월 이후 이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요청했음.



며,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답했음.

● **한-호주 “실질협력 확대로 관계 격상시키자”(5/7)**

- 외무장관 회담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스티븐 스미스 호주 외무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양국관계가 긴밀히 발전해 왔다고 평가
- 유 장관은 이를 위해 고위인사 교류와 양자협약체 개최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스미스 장관은 경제·통상 분야외에도 외교, 안보, 국방 등 전략적 분야로까지 협력범위가 확대되기를 희망했음. 두 장관은 북핵문제를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

● **中, 하이난 핵잠함 기지 건설 시인(5/6)**

-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군 핵잠수함 기지의 건설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광범위한 해안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국가의 영해 주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방의 신성한 책임”이라고 말해 핵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
- 홍콩 문화보(文匯報)는 최근 영국의 군사전문 주간지인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를 인용해 썬야 야룽(亞龍)만에 230m 길이의 부두 세 곳과 핵잠수함이 출입할 수 있는 정박지를 건설, 094형 탄도미사일 핵잠수함을 정박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 **한-베트남, FTA 관세협력관 상호파견 합의(5/7)**

- 허용석 관세청장은 7일 레 마잉 흥 베트남 관세총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지난해 6월 발효된 양국간 FTA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관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이를 위해 양국은 빠른 시일안에 관세협력관을 상호 파견해 기업의 수출입 통관 애로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분쟁을 조정하기로 했음.
- 이날 회의에서 허 청장은 이미 상호 철폐하기로 한 일부 고율 관세를 베트남측의 이행법령 제정 지연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계속 물고있는데 대해 이행법령을 만들 때 소급 발효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미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하도록 요구해 베트남측의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받았고 한국의 전자원산지 증명을 베트남측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음.
- 허 청장은 회담 후 “이번 회의는 양국간 FTA가 발효된 후 처음 가진 회의여서 매우 중요한 회의였으며 우리의 요구를 충분히 전달했고 베트남측도 대부분 이를 수용했다”며 “관세문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음.



● 한-터키, 합정 수출입 협력 타진(5/6)

- 한국과 터키는 8일 앙카라에서 김종민 방사청 차장과 베야지트 카라 타쉬 터키 국방부 기술협력 차관보가 각각 공동위원장으로 참석하여 방산협력 공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방위사업청이 6일 밝혔다.
- 방사청 관계자는 “터키 쪽에서 제안하는 방산기술협력 분야를 청취할 것”이라면서 “특히 터키 측이 해군의 상륙함(LPD)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 측은 LPD 및 LST(상륙지원함) 분야의 수출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회의에서는 K-10 탄약운반장갑차 등 양국 방산업계 간 협력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전했다.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